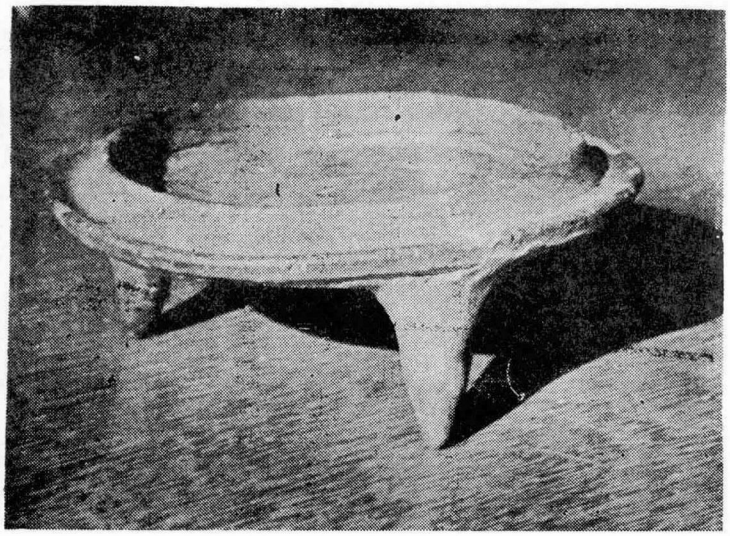
알 수 없다。

〔註〕 金載元「宿水寺址出土 佛像에 對하여」(震檀學報 第十九號 所收)

百濟陶硯의 또한例

鄭 永 鎬



新羅 百濟의 陶硯이 數例 本誌에 紹介된 바 있어 ① 이에 많은 注目을 끌어 오던中 지난 十一月 金聖翼氏(서울師大附中校監)의 好意로 百濟時代의 陶硯 一例를 調査하였는데 그 形態와 製作意匠이 異例的이었으매 簡單히 紹介하고자 한다。

淡黑色으로 土質은 堅緻하며 圓盤形으로된 身部를 下面에서 三脚으로 支撑하고있는 形態이다。上面에는 外廓이 周廻되었고 外廓보다 낮게(深一·二㎝)全面이 墨磨面으로 되어있으며 硯水를 貯藏하기 爲한 圓孔이나 或은 硯池도 없다。② 外廓外側에는 마치 蓋를 덮었던 것 같이 테두리가 있으나 그것은 外廓을 손으로 빚어 올려서 生긴 손자욱으로 보인다。外側端에서 下面으로 이르기까지는 緩曲을 이루고 그 下面에서는 平坦하다。三脚은 下面周圍를 三分하여 各 그 中心部에 附着시켰는데 모두 牛角形이다。實測値는 高 높은곳 五·六㎝ 낮은곳 五·〇㎝ 直徑 一三㎝(磨面直徑 一〇·三㎝) 脚 一…三·三㎝ 二…三·六㎝로 大型은 아니나 完全品으로서 더욱 特異하게 생각되는 것은 三脚中 그一이 他二보다 짧아서 硯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硯面및 硯全體가 傾斜되어있는 點인데 아마도 이것은 硯池 代身으로 硯水를 담기게 하기 爲한 意匠이 아닌가 推測된다。이 陶硯은 原來 附中二年在學中인 朴琴錫君이 시골 祖父宅(忠南 扶餘郡 良化面 五良里 三一七)에서 發見하여 지난 十月 學校에 寄贈하여 지금 社生科敎室에 貴重히 保管되어있다。한편 朴鵬培氏(朴君의 父)談에 依하면 此品은 隣近 山麓에서 出土되기는 오래前이며 以外에도 土器類가 多數 出土되었으며 隣接 밭에는 支石墓가 三基 現存하고 그 外 古墳이 多數 散在하여 때때로 많은 土器가 出土된다는데 앞으로 特히 이들 遺物의 蒐集이 注目되는 바이다。

註

① 洪思俊「百濟의 陶製硯과 石製硯」本誌 第二卷 第四號
朴日薰「新羅陶硯 三例」第二卷 第七號

② 本誌에 紹介된 他例에는 硯池 或은 硯水貯藏所가 마련되어 있다。

新羅 角杯臺 一雙

洪 思 俊

今年 여름 어느 骨董商에서 蔚山郡 彦陽面出土라고 傳하는 表記한 土器를 보았다。

二個中에 한개는 三孔式이고 또 한개는 二孔式 角杯臺로 色갈은 新羅土器에서 흔히 볼수있는 深灰色이다。三孔의 것은 形態가 角杯 三個를 三角形 三頂點에서 中央의 一點에 모이도록 構成되었으나 外面에서 본